

지역위원장 vs 자치단체장 힘겨루기 팽팽

더민주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전 가열

대의원대회 시작...박혜자·이형석·최진 등 지지 호소 민형배·최영호 단일화 합의...3~4일 이들 후보 접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선을 앞두고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협력해 시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로 하면서 지역위원장들이 반발하고 나서 등 후보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더민주 광산갑과 서갑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광주시당위원장 경선도 시작됐다. 지역 대의원대회는 지난달 29일 동남갑·서구을·북구갑·북갑을, 30일 동남을 순으로 열렸고, 광산구를 대의원대회는 2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당위원장에는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과 이형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은 각 지역 대의원 대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애초 이병훈 동남을 지역위원장도 시당위원장 출마를 고려했지만, 이 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합의 추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마를 접었다.

이런 가운데 최영호 남구정장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협의를 진행하며, 둘 중 한 명이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정당이 최정장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광역·기초의원들도 자치단체장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13 총선에서 패한 지역위원장들이 시당위원장에 나서려는 것 보다 지역 자치단체장이 나서 지역과 지역당원들

의 눈높이에 맞는 시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장과 최정장은 1일 국회정론관에서 나소열 전 충남 서천군수와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과 함께 시도당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민정장이 업무시간에 지역 대의원 대회를 찾아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역위원장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정장은 지난달 29일 금요일에 북구갑 대의원 대회를 참석하는 등 각 지역 대의원대회를 참석중이다. 한 지역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 평일에 자신의 지역구를 벗어나 지역 대의원 대회를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에 대한 결례”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선거관리위원

회는 13일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3~4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는다. 시당위원장 경선률은 전국 대의원 현장투표 50%와 권리당원 ARS투표 50% 합산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광주시당 전국 대의원은 400여명, 권리당원은 1만1000여 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욕을 보였던 김영록 전 국회의원이 1일 선거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이개호 의원이 추대로 도당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기자 cki@



재외동포 대학생 '아리랑 퍼포먼스'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재외동포재단의 '2016 예비대학생·대학생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에 참가한 세계 26개국의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평화·통일 기원 '아리랑 퍼포먼스'를 벌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정 소통의 장 '협업 회의실'

청사 3층에 개설...부서, 민관 장벽 제거 큰 호응

광주시청 3층에 있는 '협업 회의실'이 부서 간, 민·관 간 소통과 협력하는 회의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를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시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조직 내 협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협업 회의실'을 개설했다.

협업 회의실은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90㎡ 규모로 조성됐다. 기존 공공기관의 획일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카페 처럼 편안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꾸며 직원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창의적 발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협업 회의실은 지난 2월 선정된 11개 광주형 협업과제 팀원들을 위한 전용 회의공간과 부서 간, 민·관 간 모든 협업회의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해소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업회의 시간(오후 2~6시)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모든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직원들의 카페 및 도시락미팅 공간으로, 근무와 시간에는 동호회 활동 공간으로, 시정연구를 위한 모임공간으로도 이용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간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도 변한다. 협업회의실은 기존 회의실과 다르게 회의 참여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앞으로 시정 회의공간이 시민들을 위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청사 내 회의공간 부족 문제를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경제부시장 관료출신 2명 응모

광주시 경제부시장 공모에 2명이 응모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개방형 직위(1급 상당)인 경제부시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관료출신 2명이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서류전형을 거쳐 오는 4일 적격성 심사 뒤 12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인사위원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임명할 예정이다.

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각종 정책과 기획 수립에 참여한다. 전라산업, 국비, 국책사업 유치, 일자리, 혁신도시 소관 업무를 맡으며 정무적 기능도 수행한다.

일부에서 지원설이 거론된 시장 후보는 임명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등 '회전문 인사' 지적을 우려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임기를 채운 우범기 경제부시장은 전임 근무지인 기획재정부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

임기는 2년이며 총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봉 하한선은 7747만원이다.

전남 농수산물 수출 날개 달았다

상반기 1억 5200만 달러...전년비 25% 증가

전남도의 농수산물 수출이 날개를 달았다. 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전문업체 육성, 수출선 다변화 등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요가 증가하고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마케팅 확대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상반기 농수산물 수출은 모두 1억52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4%가 증가했다. 전국 농수산물 수출액이 4.0%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남도는 하반기 수출 물량이 더 많은 점을 감안해, 올해 수출 3억2000만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중국 산시성 및 북경, 러시아 모스크바, 프랑스 파리 등의 국제 식품박람회에 참가하고, 중국 판매장 개설, I.A한인축제 참가, 북미 판촉행사 개최 등의 마케팅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전해의 자연여건에 친환경 농업, 치어·치패 방류, 양식 품목 다양화 등 농수산물 정책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빛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의 상반기 농수산물 수출액의 지금까지 사상 최대는 지난 2012년 상반기로 모두 1억3800만 달러였다.

전남도는 김, 전복, 유자차 등 전남산 농수산물에 대한 중국, 일본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마케팅 확대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김, 전복, 유자차 등 전남산 농수산물에 대한 중국, 일본 등의 수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윤장현 시장 “한달 앞 광주비엔날레 성공 힘 모으자”

홍보·분위기 고조 대책 주문
군공항 이전 평가 최선 당부

광주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장현 시장은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체계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홍보에 나서자”고 1일 강조했다.

행사 홍보는 미흡하다”며 “홍보대책 수립과 함께 비엔날레 개최 분위기 고조를 위해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도 빨리 설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비엔날레의 특징은 지역 작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역 미술관까지 도심 전역으로 장소를 확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당부와 바람도 빼놓지 않았다. 윤 시장은 “비엔날레를 전남도와 인근 5개 시·군과의 공동, 대구와도 연계한 달빛동맹 교류 강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비엔

날레를 세계 4대 비엔날레 중 하나로 평가한 그는 “광주시도 재단 만의 행사로 보지 말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 지원체제를 구축해 성공개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이제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다”며 “우리사회 전반에서 부정정착과 부정부패 근절, 청렴 실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윤시장은 또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군공항 이전 타당성 조사 현지평가에 대해

“군 공항 이전은 광주의 새로운 미래비전이며 지역 운명이 달려있다는 절박함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에서 전국의 프랜차이즈를 만날 기회!

2016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6 8.19(금)~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8월 18일까지 온라인사전등록 무료

무료1:1 가맹상담 기회

예비창업자를 위한 무료세미나

주최 **KFA** 社團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광주·전남지회 法人 Korea Franchise Association Gwangju Jeollanam-do Branch

주관 **제일좋은전람** 후원 **한국지역산업연구원**

www.yesexpo.co.kr 문의 02)856-1402